

“중환자실 진짜 같아” “밴드 활동 비현실적”

“평범한 의사 이야기라 보기 편해”
“밴드 모임 시간 맞추기 어려울 것”
“병원 로맨스 가능해도 흔치 않죠”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평범한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시청자뿐 아니라 현직 의사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사진제공 | tvN

“대학병원 의사들이 밴드 연습할 시간이 있을까?” “교수와 레지던트의 로맨스? 가능할까?”

인기리에 방송 중인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슬의)의 예시청자라면 한 번쯤 가졌을 법한 호기심이다. 드라마는 대학병원을 배경으로 환자를 위해 몰볼 가리지 않는 의사들의 일상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바라보며 실제 전문의들의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키운다. 그렇다면 현실 속 의사의 시선에 극중 다양한 에피소드는 얼마나 사실적으로 비칠까.

● ‘평범한 의사 이야기라 좋아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슬의'는 화제의 드라마다. '메디게이트' '너스잡' 등 의사와 간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드라마가 재미있다"는 호평이 종종 올라올 정도다. 의사들은 '슬의'의 사실성에 일단 점수를 준다. 특히 극중 자주 등장하는 중환자실 장면은 "실제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각종 장비 위치를 그대로 재현한 덕분이다. 수술에 관련한 의대 본과 생활에게 환자의 심장을 살짝 만져보게

하는 장면 등도 "예비사들에 대한 교육이 또 하나의 목적인 대학병원의 기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혔다.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병원 신경외과에서 일하는 30대 정 모 전문의는 "주변에 정말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의사들의 이야기가 돋보인다"며 "드라마를 보면서 과거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가 떠오르곤 한다"고 밝혔다.

SBS '낭만닥터 김사부' 등을 비롯한 대부분 의학드라마들이 '천재'처럼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의사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과 다른 것도 의사가 호평하는 배경이다. 30대 문은혜 피부과 전문의는 "사실 대부분의 의사가 의학과라 속 이야기를 현실과 자꾸 비교하는 시선을 받곤 한다"면서 "이 드라마는 실제 의사의 소소한 에피소드도 중요하

게 다루면서 시청자의 일상에 더욱 친숙한 이야기로 비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병원 내 로맨스? "가능은 한데..."

하지만 극중 모든 이야기가 바로 현실의 모습과 맞닿아 있지는 않다. 이야기에 좀 더 긴장감을 부여하고 시청자 흥미를 돋우기 위해 극적인 효과를 엮은 것은 필수다.

극중 이의준(조정석)을 비롯한 13명의 외과 전문의들이 레지던트 장겨울(신현빈)을 자신의 과로 영입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을 펼친다는 설정이 바로 그렇다. 의사들은 "실제로는 흔치 않은 일이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 과장을 더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슬의'가 안기는 재미 중 하나는 주인공 5인방이 밴드를 결성해 연습하며 추

억의 노래를 들려주는 장면이다. 이들은 간담체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 응급 상황을 자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분야의 전문의들. 그런 이들이 언제 울릴지 알 수 없는 '응급 콜'의 긴장감 속에 여유 시간을 두고 밴드 연습을 하는 모습 역시 실제 의사들에게는 낯설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20대 전 모 씨는 "5명의 교수가 시간을 맞추기가 몹시 힘들 것"이라며 웃었다.

소아외과 조교수 안정원(유연석)을 좋아하는 장겨울처럼 극중 교수와 레지던트의 로맨스 역시 "가능하지만 흔치 않은 경우"다. 전 씨는 "대학병원이 바쁘지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터전임을 드라마가 그래도 잘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시크릿넘버 vs 레드스퀘어 vs 위클리... '신인 걸그룹' 한 판 붙자

시크릿넘버·레드스퀘어 19일 데뷔
7인조 걸그룹 위클리는 6월에 첫선

아이돌 스타들이 일제히 출격하면서 가요계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신인 걸그룹 3개 팀이 출사표를 던지며 데뷔 무대를 치른다.

각기 다른 매력을 중무장하고 치열한 컴백 대전 속에 뛰어든 신인 걸그룹들에게 어느 때보다 시선이 쏠리고 있다. 걸그룹 대표주자인 트와이스, 블랙핑크, 지난해 가장 두각을 나타낸 (여자)아이들, 있지 등을 잇는 '차세대 걸그룹' 자리를 누가 먼저 오를지 가장 큰 관심사다.

19일은 두 팀이 데뷔하며 '격돌'한다. 시크릿넘버와 레드스퀘어는 공교롭게도 5인조라는 공통점이 있다. 레아, 수담, 진희, 디타, 데니스로 이뤄진 시크릿넘버는 글로벌 걸그룹을 표방하고 나선다. 멤버들이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등지에서 각각 태어나 5개 국어에 능통해 데뷔와 동시에 해외 팬덤까지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생일, 기념일 등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숫자들을 비밀번호로 삼는 것처럼 대중들에게 영원히 특별한 존재로 남고 싶다는 의미를 팀명에 담았다.

이들을 위해 '스타 메이커'들이 총출동했다. 데뷔곡 '후 디스?'(Who Dis?)는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작곡한

멜라니 폰타나와 미셸 린드그렌 솔츠, 작곡가 샤키가 협업해 만들었다. 뮤직비디오는 자니브로스의 홍원기 감독, 춤은 아미앵 핫 칙스의 배운정 단장이 만들었다.

같은 날 데뷔하는 레드스퀘어도 신인이지만 내공(?)이 만만치 않다. 그린, 보민, 아리, 채아, 리나로 구성된 레드스퀘어는 이날 싱글 '프리퀸'(PREQUEL)을 발표한다. 과거 굿메이로 활동한 걸그룹 일부 멤버가 합류하면서 새롭게 탄생한 이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순차적으로 스토리가 담긴 애니메이션 형식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팬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다.

마지막으로 걸그룹 에이핑크의 소속사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가 에이핑크 이후

10년 만에 선보이는 신인 위클리가 6월 데뷔한다.

지난해부터 가요계에서 '플레이엠 걸즈'로 유명한 이들은 최근 7인조로 멤버수를 결정하고 데뷔 일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방송한 오디션프로그램 '믹스나인'에서 화제를 모았던 이수진이 소속되어 있어 팬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다. 이수진 외에도 먼데이, 지한, 신지윤, 박소은, 조아, 이재희 등으로 구성됐고, 평균 연령 만 17세이다.

소속사 측은 14일 "최근 그룹의 팀 로고와 공식 채널을 오픈했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뜨겁다"면서 "매일 새롭고 특별한 일주일을 선사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매일 만나고 싶은 소녀들의 친근한 매력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원픽! 위클리 업 앤 다운



‘기부천사’ 아이유 ‘화보논란’ 박유천

가수 아이유가 걷는 길은 늘 '꽃길'이다. 최근 그 '길'이 더욱 빛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억원, 미래의 어린이들을 위해 1억원, 가정의 달이라고 또 1000만원...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또 세금을 잘 내 최근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12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뽑은 '올해의 아시아 기부 영웅 3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걸어 다니는 '천사'가 분명하다.

하는 일도 승승장구다. 최근 발표한 신곡 '에잇'은 국내 음원차트를 휩쓸었고, 16일자 미국 빌보드 이머징 아티스트 차트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박유천은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다. 지난해 필로폰 투약 후 '희대의 거짓말' 기자 회견까지 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던 그가 눈물로 복귀 시도를 해서다. 최근 방송한 채널A '품문으로 들었쇼'에 출연해 과거를 회회한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은퇴를 반복하고 유료 팬클럽을 진행하는 것도 부족해 고가의 화보를 판매하는 등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자 팬들은 "쇼를 그만하라"고 비난했다. "지금도 날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용기를 냈다. 염치없는 거 잘 알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도 꼭 돌아오고 싶다"고 말하는 그는 홀로 탄 세상을 사는 듯 하다. 이정연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www.infodb.co.kr

아는 사람 부탁으로 마지못해 가입한 보험들 보장내용도 잘 모르고, 보험료도 부담스러우십니까?

비교진단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내 인생이 걸린 보험, 모든 보험을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하셔야죠?
선진국 방식의 획기적인 보험 '비교진단' 서비스 - 에프엠에셋.
대한민국에 등록된 수많은 보험사들의 모든 보험을 비교진단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막아주고, 꼭 필요한 보장은 콕콕 채워줍니다.

보험전문가 에프엠에셋의 맞춤형 해결법!

- 노후대책을 위해 나에게 딱 맞는 '연금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중신보험'은 어떻게 드는 게 좋은지?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꼭 필요한 '간병보험'은 어떤 게 유리한지?
- 보험을 통한 '절세 노하우'까지?

보험은 FM대로! 에프엠에셋의 비교진단 설계!

- 동일한 보장에 보험료는 저렴한 상품을 찾아주고!
- 중복가입으로 줄줄 낭비되는 보험료는 막아주고!
-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암보험을 찾아주고!
- 나에게 꼭 맞는 노후보장 대책도 세워주는 비교진단 설계!

이미 가입한 보험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도
보험전문가가 '비교진단'해 드립니다.

24시간
무료상담

080-235-0119